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 새 총리에 ‘전환치료 금지’ 우려 전달



영국성공회 지도자들이 최근 당선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조치가 전통 교회와 일반 기독교 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들은 성경을 믿는 교회에 대한 ‘부당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생각되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종교적 표현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와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소위 전환치료에 대한 입법적 금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며 “목회적 상담에서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주류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환치료의 한 형태’라고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CT는 “노동당은 당 선언문에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총선 후 100일 안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전환치료 금지 조치로 인해, 원치 않는 동성애 유혹이나 성적 불쾌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의 목회적 상담이나 기도 등 일반적인 기독교 관행이 범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스톤월은 ‘개인기도’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 ‘전환치료 금지’ 캠페인의 성공회 의장인 제인 오산도 “부드럽고 강압적이지 않은 기도도 (금지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휴머니스트’는 이 법안이 회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경찰과 검찰이 누군가가 ‘잘못된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들은 “새로운 금지 규정이 광범위하게 정의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해당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별에 민감한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서한은 총리를 만나 우려 사항을 직접 논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는다. 이들은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종교적 문해력 격차를 메우며, 정부가 기독교인과 신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잠언 8:1,6-7)

하나님,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시행하려는 영국 정부를 막아주시고, 성공회 지도자의 권고에 겸손히 깨어진 심령으로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생명을 얻게 하소서. 개인기도와 회개기도 마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악을 발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담대히 가장 완전하고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더 소리 높여 선포케 하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막으려 하는 원수의 모든 간계를 파하시고, 영국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을 내어 오직 주를 따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독일 Z세대,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독일에서 젊은세대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18-29세의 젊은 세대인 Z세대 독일인들은 일종의 예외적 존재다. 에르푸르트에 본사를 둔 인싸-콘솔레(Insa-Consulere)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독일 성인의 11%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 독일인 중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2% 미만이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절반의 독일인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싸-콘솔레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약 48%가 하나님을 믿는 반면, Z세대는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열심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큼 충분할지는 불분명하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맹은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에 거의 700만 명의 교인을 잃었다. 그리고 2022년에만 50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로마가톨릭 교회를 떠났다.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까지 약 4만 개의 독일 성당과 예배당이 사라질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편 70:4)

하나님, 종교개혁의 은혜가 퇴색하고 기성세대조차 점점 신앙을 잃고 있는 독일에 젊은세대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찾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세워주시어 이들을 통해 모든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동성애와 마약, 낙태 등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죄로 어두운 이 땅이 빛 가운데로 나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헌신과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 소말리아, 차량 폭발로 5명 사망·20명 부상…알샤바브 소행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한 카페 인근에서 14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가 차량에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5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뉴스1이 15일 소말리아 국영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해당 카페는 유럽축구연맹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 결승전 경기를 보려는 축구 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알샤바브는 샤리아법(이슬람법)에 근거해 소말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극단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소말리아 정부군과 투쟁하며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폭탄 테러를 자행해 왔다. 이후 정부가 알샤바브 소탕 작전에 공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앞서 13일 모가디슈 주 교도소에서는 알샤바브 대원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알샤바브 대원 5명이 사망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잠언 15:1,26)

하나님, 이슬람의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 영혼을 도륙하는 악한 꾀를 꾸미며 오랜 시간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에 대항하는 정부군과의 투쟁에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비와 다툼을 멈춰주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소말리아에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00년 선교에도 교인 1%대...“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해야”



태국 선교가 시작된 지 200년이 넘었음에도 현지 교세가 미약한 원인으로 태국 교계의 세속화와 불신자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혔다. 현지 사역자들은 태국 선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현지인들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라고 조언했다.

8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태국 선교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현지 정부의 우호적 태도 속에서 지난 200년간 태국 선교가 진행됐음에도 현지 교인 비율이 1%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교연구단체 글로벌 미션 데이터베이스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을 포함한 태국 기독교인이 총인구 약 6,980만 명 가운데 98만 명가량으로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8년부터 개신교 차원에서 태국 선교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저조한 숫자다. 이를 놓고 CT가 5명의 현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에게 원인 및 해결책을 물어본 결과 교인 대부분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60년간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앨런 유뱅크 선교사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산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우리는 종종 권력과 물질 및 성적 유혹에 굴복했다”며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등 매우 교만했다”고 말했다. 나티 탄찬퐁 방콕 그레이스시티교회 담임목사는 여러 해 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물질주의와 계급제도가 교회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콕 수업삼판타영 제4교회 지도자 말리 분잇은 태국교회는 부패가 심하고 교인 간 소송이 많으며 이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누룻 파니치 방콕 사도행전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관리자가 아닌 상사처럼 행동한다”며 “선배 목회자에게 반대할 수 없고 항상 선배 의견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에 익숙한 태국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저조한 교계 성장의 이유로 꼽혔다. 예수전도단 프론티어 미션 태국 핏사눌록 지부 코디네이터 마누엘 베커는 “태국인이 된다는 건 곧 불교인이 되는 것과 같으며 서구 기독교의 수용은 태국인에게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지난 50년간 사역한 난타차이 메주돈 선교사는 많은 현지인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 사정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교인이 됐다고 말했다. 파니치 목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과 학교 및 시장 등에서 우리 삶이 좋은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린도전서 2:1-2,16)

하나님, 복음에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지난 200년간 선교의 열매가 저조한 이유가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한 교회에 있다는 진단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태국교회가 그동안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말과 지혜뿐이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겸손히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교회들이 일어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 되어 선교완성을 이루어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 2,420만 부 보급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 2,420만 부가 보급됐고, 신약 성경과 단편 성경, 어린이 성경을 포함하면 총 1억 5,200만 부가 배포됐다고 대한성서공회가 15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터키성서공회는 작년 강도 7.8의 대지진을 겪는 환난 속에서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성경 2만 부와 신약 성경 3만 6,000여 부를 배포했다. 파키스탄성서공회는 작년 신약성경 12만 3,000부를 배포해 전년(1만 1,200부)보다 10만 부 넘게 증가했다. 무장 갱단이 도심을 장악해 치안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아이티성서공회는 학교 20곳의 학생 1만여 명에게 성경과 소책자를 제공했다. 또 갱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프로젝트 '아이티를 위한 희망'을 진행했다. 걸프성서공회는 쿠웨이트 인구 70%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쿠웨이트 내 이주민 교회 목회자-공동체 지도자 대상 성경 훈련 세미나를 열고 암하라어-타갈로그어 등 현지 노동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성경을 배포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시편 119:173-175)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의 말씀이 전 세계에 보급되게 하시며, 특별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나라에도 성경 보급을 통해 희망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국제이주기구, 수단 내전 피란민 1,000만 명 넘어

15개월여 이어진 내전 기간 수단에서 1,000만 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1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작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220만 명 이상이 다른 나라로 도피했고, 약 780만 명의 수단 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여기에 내전 발발 전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의 분쟁으로 집에서 쫓겨난 국내 실향민(ADP) 280만여 명을 포함하면 수단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15개월 넘게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6:18)

하나님, 내전과 여러 지역의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수단의 수만 명의 피란민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고 돌봐주시길 간구합니다. 속히 수단 내에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얻게 되는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열방을 경영하는 복의 통로 삼으사 주의 구원을 나타내소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90년 8개월 징역형’ 받은 베트남 기독교인 11명 실종**



베트남에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총 90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11명이 실종되면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체포된 개신교인 6명과 가톨릭교인 5명이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실종된 상태”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6명의 개신교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가르 개신교와 관련이 있고, 5명의 가톨릭교인은 하문 가톨릭교회 출신”이라며 “두 종교 운동 모두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베트남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국가적 통일 정책을 훼손한다’며 자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개신교인 6명은 데가르 개신교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히 표적이 되어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후 ‘삼림 벌채’ 명목으로 체포됐고, 교회 폐쇄를 거부한 혐의로 구금됐다. 하문 가톨릭교회에 속한 다섯 명의 신자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데가르족은 몬타냐르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중부 고원의 토착 민족으로서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고문 중단 캠페인에 따르면 이들은 종종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으며, 저항할 경우 구타와 투옥과 같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한다.

2018년 베트남은 종교와 신앙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는 “이 법안은 인정된 종교를 통제할 뿐 아니라 인정되지 않은 단체들이 국가가 승인한 관행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해 종교의 자유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에 발표된 최신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종교적 관행과 언어를 침해하는 지침을 시행하는 등, 민족적·종교적 소수인들에 대해 특히 공격적”이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의회에 “국제종교자유법이 정의한 대로, 베트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시편 97:6,10)

하나님, 소수 종교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처사와 강압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을 이유로 실종된 이들과 여러 박해에 놓인 베트남 교회를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악한 자들의 위협과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베트남 영혼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대한민국, 호우로 8개 시도 887명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등 잇따라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호우로 8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585세대 887명이 대피했다. 충남 논산에서는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이번 호우로 경기와 전남에서는 각각 47건, 161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다. 강원에서는 토사유출 2건이 발생했고, 전남에선 279ha 규모의 벼가 침수됐다. 현재 경기 37곳과 서울 2곳 등 총 47개의 도로·지하차도가 통제된 상태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18일 서울·경기 지역 10개 하천에 홍수특보가 내려졌다. 경기 동두천시 신천과 파주시 문산천은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고, 서울 도림천과 목감천, 경기 고양시 공릉천·파주시 임진강·한탄강·포천천·차단천·조종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동안 남부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북부·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1-3)

하나님, 한 곳은 폭염으로 또 다른 곳은 쏟아지는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고 교통이 통제되어 그저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이 땅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침수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돌봐주시고 지역교회의 사랑의 섬김과 전도를 통해 이들의 아픔이 위로받고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놀란 가슴으로 있을 국민들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터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 전쟁·기아 피해 그리스 입국 아동 6,400명...작년 대비 4배

올해 전쟁과 기아를 피해 그리스에 입국한 아동이 6,400여 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어섰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이 밝혔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의 월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5,580명의 이주 아동이 예게해의 그리스 섬에 해상으로 도착했다. 약 830명은 육로로 도착해, 2023년 상반기에 도착한 이주 아동 1,850명에 비해 약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그리스에 도착한 아동 이주자 4명 중 1명은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 없이 왔으며, 비동반이주 아동은 총 1,500여 명으로 2023년 상반기의 3배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유럽 국장이자 EU 대표인 에르고네는 "그리스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어린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당국과 EU는 강력한 후견인, 필수적인 적절한 보호 시스템, 개선된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이사야 42:3-4)

하나님,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굶주림과 전쟁을 피해 홀로 먼 길을 떠난 수많은 아동을 불쌍히 여기사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이 보호받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밀려오는 이주 아동들과 난민들에 대해 그리스와 주변 국가들이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을 앙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주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